

살아있는 빛의 수수께끼

①

코로트코프 박사(Dr. Korotkov) / 한병석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이 글은 미내사의 지난 5회 취산국제 신과학심포지엄에서 GDV장치와 원리를 주제로 발표했던 러시아의 코로트코프 박사가 '기도'나 '사랑' 등 현대과학장비로 측정이 불가능한 것을 측정해보고자 시도한 실험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현상들이 GDV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뒷부분에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GDV의 원리를 실었습니다.(편집자 주)

기도를 측정할 수 있나?

구자는 빛을 따르며 모든 만물을 살피느니라.

-노자-

몇 해 전 시카고 세미나에서 30~40세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인이 내게 다가왔다.

“저는 자넷트 단롭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과 학술 프로젝트를 상의하고 싶습니다.”라고 자신 없는 목소리로 그녀가 내게 물었다. “물론이죠. 한 으로 비켜 말씀을 나눕시다.” 나는 기꺼이 응수했다.

미국에선 GDV(Gas Discharge Visualization; 가스방전 시각화) 방법을 이용한 몇 개의 논문이 이미 발표된 터였다. 논문은 수년간에 걸친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긍정적인 결과는 논문 저자의 권위는 물론 그가 연구하는 방법의 권위를 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넷트의 논문 아이디어를 듣고 나는 거절부터 하고 싶었다. 그녀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 고상하고 우아한 여인은 보기와 달리 물러설 줄 몰랐다. 이 아이디어를 이미 오래 전부터 달고 다녔던 듯,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집념이 그녀로부터 흘러나왔다. 이후 2년 간 자넷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있었던 나의 세미나 모두에 참석했다. 순전히 인문학도인 그녀가, 전화 버튼만 누를 줄 아는 사람이 복잡한 학술논문에 쓸 용도로 컴퓨터를 배울 결심을 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수 명이 그녀를 도왔다. 누구는 장비 기기 다루는 법을 가르쳤고, 누구는 수학 연산을 대행했고, 누구는 관련 서적을 선별 작업했다. 드디어 자넷트는 논문을 완성했고 대학에서 심사를 치렀다. 그리고 모든 회의주의자 앞에서 자기의 지식 수준을 과시했다.

‘사람이 뭐든 강렬히 원하면 하늘이 그를 돕는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이것은 아르헨티나 작가 파울로 코엘료(Paulo Koel’o)의 책 <Alhimik>에 나오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넷트가 작업한 핵심 내용은 뭘까?

그녀는 미국의 전원주택지라 할 수 있는 밀워키 주에 산다. 예쁜 독립주택

군(群)이 단정한 꽃밭과 놀이터로 구획되어 있는 곳이다. 단독주택에는 한 가족이 살고 모든 게 신용제이다. 그래야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현금이 있어도 마참가지다. 슈퍼에는 일주일에 한번 물건을 구하러 간다. 뭘가 잊었으면 다시 차로 40분을 가서 슈퍼나 주유소를 찾아야 한다. 음료수를 파는 가판 냉장고도 없다. 모든 상점은 저녁 7시에 폐점한다. 으면 그만이다. 직장까지는 1시간 반 걸려 통근한다. 매일 아침마다 한 방향으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저녁에는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며 근무하는 직업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 게다가 매일 상관(상사)을 보지 않아도 되고, 한마디로 미국의 전원에는 시끄러운 거대도시에서 떨어진 먼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빼대있는 사람들이 산다. 바로 이런 지역에서 자네트는 35~60세의 남자 지원자를 모았다. 몇 개월의 실험 기간 중 있을 수 있는 여성의 호르몬 변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남자들을 택한 것이다. 또 유년기의 변덕과 고민이라는 불안정한 요인이 없도록 가장 활동적이고 안정적인 연령 대를 취했다. 선택된 남자들은 급성 또는 만성적 질병이 있으면 제외됐고, 술이나 마약 등 해로운 버릇이 있어도 제외됐다. 러시아에서 이 표준 그룹을 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술 한 잔 대접 안 받고 실험에 응해줄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만약 응해 준다해도 그렇게 되면 실험의 조건은 바로 붕괴될 테고... 따라서 이런 종류의 실험은 미국이나 스웨덴 정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모든 지원자의 상태는 실험 개시 전에 계측되었다. 심리테스트, 혈액 검사, 신체적 조건, 손가락에서 나오는 빛의 파라미터 등을 측정했다. 모든 지원자는 무작위 방법에 의하여 2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이 때 지원자 중 누구도 자기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게 했다. 그런 후 지원자는 다시 일상생활을 지속했다. 직장에 다니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고, 유일한 차이라면 한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해 한달 내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뿐이다. 이 주제가 서양 과학에서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과학과 종교, 유물론(물질주의)과 정신간의 상호관계는 이미 1세기 이상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다. 엘레나 블라바쯔까야(Elena Blavatskaya)도 창기에 이 주제를 다뤘는데, 그녀는 천재적인 예술애호가요, 신지학(神智學) 운동의 창시자이다. 20세기

말에 들어서 이 주제는 이론적 연구 대상에서 벗어나 과학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 신앙을 가진 많은 학자들은 신앙이, 특히 기도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어했다. 정말로 하느님이 믿는 자를 돕는다면 하느님은 마땅히 그에게 건강을 허락해야 한다. 수도승(사제, 신부)이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수많은 얘기가 그냥 땅에서 솟아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견 수도자의 삶이 평온하다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보통 사람은 어떻게? 이들의 건강 상태는 서로 통계적 차이가 있을까? 몇 건의 대규모 사회 연구조사가 진행되었다. 심근 경색(심장마비)을 겪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절대 생존점까지 분명히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위, 삶의 수준, 약물 복용 여부, 종교, 기타 등등의 모든 가능한 변수들이 참작되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물질적 풍요와 안락은 건강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연구는 미국에서 행해졌으며 피연구대상자 중 굶는 자는 없었지만 미국에서도 다양한 그룹간 삶의 수준 차이는 꽤 크다). 종교는 큰 변수로 밝혀졌다. 신앙인이 통계적으로 오래 살았다. 하지만 중요도에서 다른 모든 요인을 훨씬 앞선 것은 연구자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나왔다. 집에 친구인 개, 고양이 등이 있나 없나가 최고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동물을 두고 있는 사람은 오래 살고 더 건강했다. 이 래서 사랑하는 존재를 옆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연구조사인데 미국의 대형 병원에서 무작위로 800명의 환자를 선별하여 간호사들이 매일 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했다. 1개월 후 이들 환자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지만 기도를 받지 않은 컨트롤 그룹과 비교 분석해본 결과, 기도를 받은 그룹에서 건강회복도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연구에는 수백, 수천 등 많은 숫자의 피실험자가 요구된다.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누구는 나빠지지만 인원이 많은 그룹에선 가중 평균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런 실험에서는 전통적 통계방식이 아주 유용하다.

자넷트의 실험에서는 미묘한 개인적 차원의 변화를 잡아내려는 계산이었다. 생리적, 심리적 장(場)등의 모든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추적,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방법을 취한 것이다. 실험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나는 충고하기를 생리적

이든 심리적인든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자넷트에게 권했다. 그러면 이들에게서 개선되는 뭔가가 확실히 나타날 거라 주장했다. 하지만 고집센 이 여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추가 요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았던 것이다. 1개월 후 재측정을 했다. 데이터를 가공해 본 결과 어떤 파라미터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했고 변화가 없었다. 첫 번째 컨트롤 그룹 40명과 비교하여 조사한 그룹 내 40명의 통계 결과가 모두 그랬다.(1달 기간 중 5명은 이런 저런 이유로 탈락했다). 자넷트는 크게 실망했다. 지나간 그 어려운 작업의 날들, 컴퓨터와 씨름하다 잠 못 이룬 밤, 도서관에서 보낸 오랜 날들이 물거품이 돼버린 것이다. 그런데 수학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다시 분석을 했다. 이 접근방식이 적중했다. 이처럼 오묘한 것이 통계다! 기도를 받은 실험 그룹에 속한 9명이 GDV 파라미터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차이를 보인 것이다. 즉 이 9명은 한달 동안 변화가 있는 반면 다른 나머지 사람들의 상태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그림 1)에 보면 다차원 공간에서 실험자의 상태 그래프를 볼 수 있다. 3개의 축을 기준으로 다양한 GDV 지표가 분포돼 있다. 각 면에 특정지표표를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2개의 끝 면에 속하는

점들은 다른 점들과 달리 한군데에 몰려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의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차이를 밝혀내는 것은 이 분석 방법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회의주의자 : “이들 변화가 다른 요인 즉 독감이나 복권당첨이 아니라 기도 때문이란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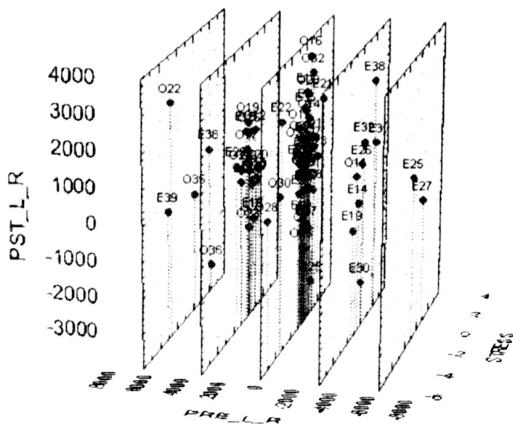


그림 1

저자 : “실험은 컨트롤 그룹과 비교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점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들 변화는 다른 여러 요소에서 기인할 것이라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자넷트는 이들 요소들도 참작하였습니다. 그녀의 설문조사에서 병력이나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5명이 큰 일을 겪었고, 그래서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기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믿을 수 밖에요.”

회의주의자 : “기도의 영향을 직접 측정해보지는 않았나요?”

저자 : “여러 나라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기도 전과 후로 나누어 신체의 장(場) 사진을 찍어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한테는 변화가 거의 확실합니다. 이러한 실험의 가치는 그러나 자넷트의 작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그의 심리, 감정이 이 프로세스에 개입되고 그는 결과를 믿습니다. 따라서 거의 변화가 감정 때문인지, 기도 때문인지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저렇듯 건강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회의주의자 : 당신 말대로 된다면 신앙인은 오래 살고 아프지도 않겠네요! 병원에 가면 그들이 무신론자보다 적지 않던데요.

저자 : 삶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생리, 영혼의 차원 모두에서요. 우리는 매 순간 수천의 박테리아를 마시고, 질산염, 아질산염 등 공해를 마시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나쁜 생각과 나쁜 시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선과 악의 투쟁이 계속됩니다. 빛의 천사가 자기 보호자를 계속해서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보호자는 스스로 악의 나라에서 화려한 장난감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느님의 사자와 영혼의 유혹자-악마를 구별하기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가 제물-희생양을 자기 그물로 유혹할 때 그의 말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면, 깨끗한 환경에서 진실로 올바

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는 습니다. 산중의 스님이나 그럴까요? 나나 당신이 사는 현실에서는 건강의 주요 요건은 삶에 대한 낙관적 태도와 올바른 식생활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은 그것을 측정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짚 수 있을까?

부처님의 빛남은 영원하고 꺼짐이 없느니라.

- 잠마나가 -

얼마 전 나는 확장시절 한 친구의 50회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친구 장본인과 그의 부모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그가 일어나 20년을 같이 하고, 아내 없이는 뭔가가 부족하고, 지금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라며 아내를 위해 건배 축사를 했다. 참석자들은 기꺼이 축배를 들고 잔을 비웠다. 그런데 열렬한 독신주의자인 한 친구가 끼여들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렇지 않아. 습관이란 아침마다 이빨을 닦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니까. 그러나 사랑은 오래 떨어져있으면 살 수 없는 거야.” 잔치의 주인공인 안드류샤가 반박했다.

“다양한 차원의 사랑이 있겠지. 부모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아이에 대한 사랑, 오렌지 3개 사랑.” 보라가 대화에 참가했다.

“진실한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거야.” 안드류샤가 거들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짧지만 정확히 표현하는 재주가 있다.

“아이와 섹스 파트너에 대한 사랑에는 차이가 있지. 양쪽 모두를 위해서 사랑은 뭐든 희생할 수 있지만 말이야. 목숨까지도.” 우아하게 크리스털 잔을 입에 대며 니노츠씨가 말했다.

“사랑은 다양한 면이 있지.” 발렌찐이 이었다. “인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몸

은 열정을 낳고, 마음은 존경을 낳고, 영혼은 우정을 낳고, 세 개를 모두 합치면 사랑을 낳는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비중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도 사랑은 가능하지.” 슈라의 말이다.

“사랑은 참 모순이야. 우리는 ‘때문에’ 사랑이 아닌 ‘그래도’ 사랑을 하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 열정의 대상이 가진 단점, 결함을 잘 알지 못해. 자기 마음속에 뭔가 이상형을 만들곤 하는데, 그것은 현실과 완전히 판판일 때가 종종 있거든.”

“사랑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하지. 주변 사람은 험히 알 수 있거든. 뭔가 특별한 것이 공간으로 방출되는 거야.” 류바샤가 외치듯 말했다.

“사랑을 과연 짚 수 있을까?” 보랴가 물었다.

그 순간 나에게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다. 슬로베니아의 류블라나에서 있던 국제회의에서 스타르첸코(Starchenko) 가족이 실험 결과를 보고했다. 아주 기분 좋은 여행이었다. 나는 보예이코브이(Voyeykovy V. L.) 박사와 함께 류블라나 대학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이고리 코노넨코(Igor' Kononenko) 교수가 행사를 주관했는데 그는 수학자로 인공지능분야에서 유럽의 권위자이다. 그는 의식과 의식이 주변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자로서 우리의 삶이 물질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아이디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여러 실험을 했고 결국 우리의 GDV 카메라에 낙점을 찍었는데 이 기기로 감정과 정신적 체험이 사람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했다. 코노넨코 교수는 명상, 기도, 동방의 수련의 영향을 측정했고 통계적으로 객관적 효능을 증명해냈다.

슬로베니아는 이태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호르바찌야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다. 인구는 2백만도 안되고, 전 국토를 한쪽에서 다른쪽 끝까지 가는데 차로 4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이 작은 나라는 너무 아름다워 한달 내내 봐야 다 구경할 수 있다. 크리스털 산정호수, 폭포, 접근하기 어려운 중세의 성곽, 세계 최대인 종유석과 석순 동굴, 지하 호수의 원시의 아름다움, 칠흙 어둠 속에

사는 장님 물고기... 이 동굴 위 절벽에서 있는 성곽은 빼앗긴 적이 없다. 중세의 한 때는 성을 포위한 사람들이 성벽을 넘지 못하고 1달 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다 이웃 마을에서 유유히 맥주를 즐기는 성안의 사람을 만났더라. 이들은 비밀 통로로 동굴에서 내려와 지하의 미로를 타고 산의 맞은편 밖으로 나왔던 것이다. 돌로 지은 다소곳한 집들의 마을, 집들마다 지하에는 참나무 포도주 통이 텅군다. 지역마다 맛이 다른 포도주를 담고있다. 마을 사람들은 손님이 자기 집에 들러 치즈를 곁들인 포도주 한 잔을 마셔주면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작은 나라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 밀집해 산다. 우리의 GDV 기기가 인구 1인으로 기준할 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면 충분한 설명이 될 거다. 류블랴나에만 몇 개 실험실이 있는데 바이오에 지학을 연구중이며 흥미 있고 독창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회의에서는 하나의 보고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그리 흔치 않은 현상이다. 예카제린부르크(Ekaterinburg) 출신의 아누프리에브이(Anufriyevy) 부부의 보고는 큰 호응을 받았다. 나는 이 부부와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다. 가늘고 우아한 엘레나는 심리 상담사인데 감정과 직관으로 산다. 그의 남편 빅토르 빠브로비치는 비즈니스맨이다. 몸이 단단하고 믿음이 깊고 신뢰가 가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 둘은 예카제린부르크에 바이오에지(Bioenergetics) 실험실을 개설했다. 빅토르의 사업수단과 엘레나의 열정으로 이 실험실은 우랄지역에서 명성을 얻었고 2000년에는 그들의 업적이 국제적인 승인을 받았다. 그들의 말을 직접 소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 심리 활동에서 최고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생각이 사람의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에는 빼제르부르크 꼬로트코프(Korotkov K.G.) 교수가 개발한 Corona-TV(GDV 기기의 한 모델)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했습니다. 기기는 손가락 GDV 빛 그림을 촬영하고 이어 컴퓨터에 가공되어 사람 몸 주변에 공간 오라를 만들어 냅니다. 이 기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생각의 영향에 따라 사람의 오라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는 사실상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2년 간 지속되었고 피실험자 수는 50명입니다. 조화로운 오라를 가진 친한 사람들께서 흥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Varicard’ 심장진단 기기와 심장 리듬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행한 이전의 연구에서 생각과 심장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로서의 생각은 심장 박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심장 수축의 횟수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심장 활동의 조율에서 생장 밸런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조율 시스템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GDV 방법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 전체에서 떨어져 나온 에너지 덩어리(클러스터)모양의, '사랑 생각'을 잡아냈습니다. 현대에는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은 물리적 성질을 지니며 에너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모든 것을 관통합니다. 수많은 텔레파시 실험을 통해서 두꺼운 장벽도, 엄청난 거리도 생각의 장애가 되지 못함이 증명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학자이자 심리의사인 베흐체르프(Bekhterev V.M)는 1919~1920년에 생각을 일정한 곳에 보내는 실험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동물에게, 이어서 사람에게 전송하는 수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생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1920년대에 인도의 유명한 생물학자 보셰(Boshe)는 사람의 생각이 식물의 생장에 미치는 효능을 연구했습니다. 1930~1940년대 서구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생각과 그것을 전송하는 실험들을 했습니다(영국의 아드리안(Adrian), 메티우스(Metius), 미국의 레인(Rein), 맥더글(Mcdugle), 독일의 브룬러(Brunler) 등). 캘리포니아주의 심리과 의사 아니타 몰(Anita M'ul) 박사는 질적으로 다른 여러 생각들은 사람의 맥박 수를 변동시키면서 사람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했습니다. 우주에 대한 학계의 관점은 모든 물질의 본질은 그 에너지 특성과 불가분의 관계란 것입니다. 이 에너지 세계관의 근거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깔려 있습니다. 방사능 현상이 발견되면서 물질이 천천히나마 에너지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의 $E=mc^2$ 방정식은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함은 물론이고, 이론적으로 그 반대의 프로세스, 즉 에너지에서 물질로의 변환에 대해서도 타당합니다. 즉 에너지와 물질은 동일한 우주적 존재, 실체의 두 가지 모양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세계관에는 삼라만상이 운행하는 유일한 힘, 그리고 우주에 사는 모든 것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개념이 항상 내재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만물의 근본이 되는 우주 에너지는 다

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기(氣), 고대 인도에서는 프라나(Prana) 또는 ‘생명의 힘’으로 명명했습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심리 에너지라 합니다.

‘삼라만상은 우주 에너지의 모습’이라고 베흐쎬레프는 생각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건, 그것은 모든 곳에서 나타나며 어디서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고 동일한 의존성과 법칙을 따른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우주 에너지는 모두 신경-심리에너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 심리활동의 지고한 모습(표현)인 생각은 동시에 심리에 지의 지고한 모습(표현)입니다. 인류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공간으로 내보낼 때,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각을 집중했을 때 심리에 지는 뇌가 아닌 가슴에서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포착했습니다. (그림 2 a, b)에서 (a)는 원래 상태의 오라입니다. (b)는 ‘인류에 평화를’이란 생각을 공간에 뿌릴 때의 오라입니다. 심장에 지의 신경 센터(심장 차크라)가 활성화됩니다. 오라를 보면 가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오라 두께의 2-3배가 더 됩니다. 손가락의 GDV 이미지에서는 왼쪽 새끼손가락에서 나갑니다. 이 때 오라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짝 찢으며 간격이나 틈이 없고, 다른 에너지 센터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도 없습니다. 사랑에너지는 가슴에서 힘차게 날아갑니다. 맥박은 분당 10-15회 더 증가합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각을 보낼 때 에너지 클러스터(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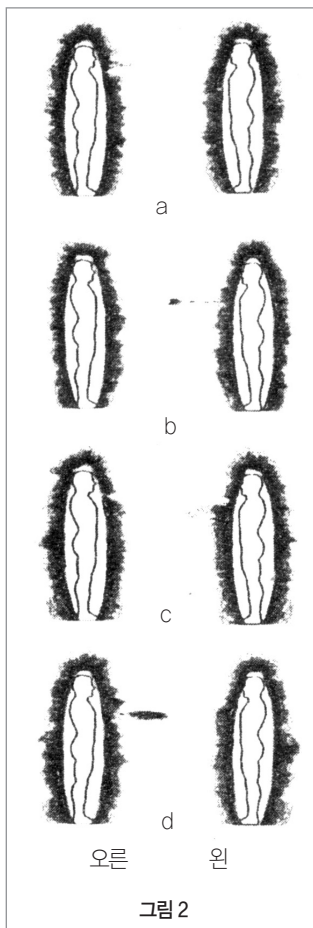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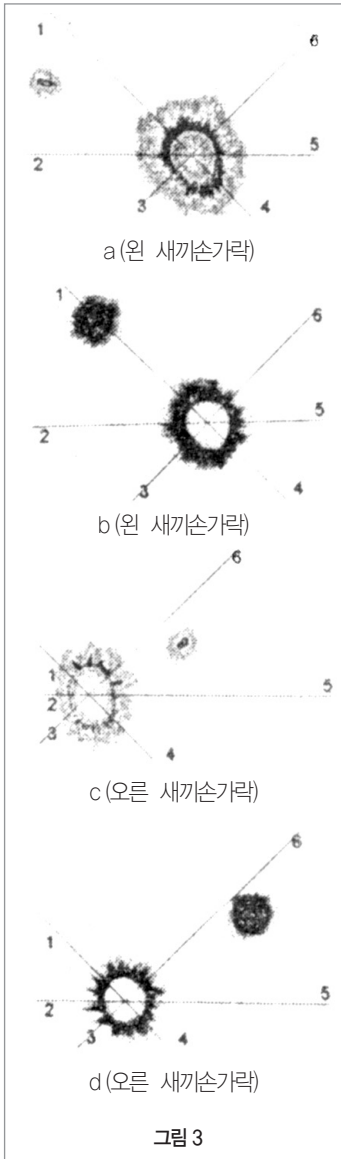


그림 2



치)가 보내는 사람의 가슴에서(그림 2 c) 나와 받는 사람의 가슴으로 (그림 2 d) 들어가는 모습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 빛의 GDV 이미지에서 보내지는 생각은 왼손 새끼손가락(그림 3 a, b) 심장부위에서 포착되었고, 수신되는 생각은 오른손 새끼손가락 심장부위에서 잡혔습니다. 찍힌 생각 모습은 제대로 된 클러스터의 모양이며, 원래 오라에서 떨어져 나온 것인데 색깔과 모양이 원래 오라와 유사합니다. 클러스터 핵의 선명도는 본 오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의 선명도와 같습니다. 아니 약간 더 밝습니다. 클러스터는 심장의 여러 부위에서, 그리고 새끼손가락 빛으로부터도 다양한 간격에서 잡힙니다. 보내지는 생각 에너지 클러스터는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클러스터는 두 객체간 거리에 상관없이 1~2초 동안 잡혔습니다.(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까지 1500km든, 1~2m의 거리든).

생각이 어디서 생겨나는가의 문제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거리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에클스(Ekks)는 뇌가 생각의 수용자이지 생산자가 아니라고, 즉 외부의 생각을 받아서 가공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그것을 생산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베흐제레프는 이것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생각은 뇌가 충분히 처리하지만, 개념 등등일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멜부르크 대학의 헤르스트(Herst) 박

사는 1995년 가슴은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뇌와 상관없이 자기 리듬을 바꿀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Corona-TV로 얻은 우리의 결과는 이 견해를 확증합니다. 가슴에서 느껴진 생각은 가슴에서 태동하여 가슴이 보내고 가슴이 받습니다. 보낼 때 사람이 애절한 감정을 더 투입할수록 즉 더 진실할수록 맥박은 더 늘어납니다. 생각이 생명력을 갖도록 필요한 가슴 에너지가 생각에 부여되는 듯 합니다. E.레리호프(E.Rerihov)와 N.레리호프(N.Rerihov)가 전한 ‘살아있는 운

리 교육’에 ‘뇌란 것은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불 속에서 태동한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생각은 무게를 가진 불 수 없는 무엇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콩이 팔이 아니란 겁니다. 생각은 가슴을 통해 보내지고 가슴을 통해 받아집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는 사랑의 생각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식물과 동물,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주변 세계에 말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생각은 불멸입니다. 인류는 자기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지구 에너지에 자기 것을 더 합니다. 각 개인은 자기 생각의 질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훌륭하지 않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는 현상은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자기의 따뜻한 감정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한테서 여러 번 잡혔다는 것이다. 결론은, 사랑은 힘이다. 우리의 물질 세계에 자신을 내보이는 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악을 물리치고 인간을 위협하는 재앙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살아있는 빛의 수수께끼

코로트코프 저



코로트코프 박사의 최근 저서. 이 책은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GDV로 측정된 임상 사례들 외에 인류의 정보 진화에 대한 그의 철학이 솔직 담백하게 들어 있는 에세이다. 그는 서구 학자들의 엄격한 학문적 접근방식과 중국, 인도 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물질적 접근 방법과 정신, 혼의 문제를 엮어 내고 있다. 러시아에서 그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는 ‘과학, 인포메이션, 의식’을 주제로 다룬다.

법과 정신, 혼의 문제를 엮어 내고 있다. 러시아에서 그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는 ‘과학, 인포메이션, 의식’을 주제로 다룬다.